

4.19 혁명 단체회원 오찬

4.19 혁명 회원, 유족회 회원 여러분, 공로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자리 모셔놓고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가슴 뿌듯하고 여러분과 함께한 자리가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장 회장께서 너무 과분한 평가 해줘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과분한 평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저와 함께 오늘 점심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마음 통하면서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세상에 모든 일들이 행동할 때 평가 다르고, 또 이후 역사의 평가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또 모든 사건 행동 등에는 매 시기마다 긍정적인 게 있는가 하면 부정적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보면 분명히 그 진리에 입각한 역사, 정의에 입각한 역사가 있습니다. 길이 변하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그를 위해 자유 평등 평화 민주주의 수단적 가치, 불변의 가치로 생각하면 4.19의 가치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3.1 운동이 한민족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금자탑이듯 4.19도 그만한 위치를 영원히 가질 것입니다. 다행히 맥이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정말 역사와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지만 끝내 4.19 정신의 결실을 맺어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주주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가신 분들께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당대 이만큼 이룬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4.19 묘지에 가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고, 한편 자랑스런 역사를 고할 수 있습니다. 4.19정신의 대열 끄트머리의 한 줄에 끼워주시면 저도 영광이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정치가 여러분 맘에 드는 것이 있고, 맘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입니다. 어떤 정치든 역사의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혼을 다해서 그 사회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때문에 많이 원성 들었는데, 다행히 요즘 기름 값이 날마다 오르지만 경제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시 관계자들을 모아 대책을 세우고, 고유가 시대 대비할 것입니다. 국민의 역량을 믿고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언제나 도전과 난관을 잘 극복해 주는 국민을 믿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너무 시장에서 어떤 물질적인 성취에 매몰돼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홀트리지 않고 바로잡아 가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당장은 이뤄지지 않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민족의 자주권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미래에 너와 내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양극화, 지역이 분열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해 장기적으로 다시 수난 겪는 일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와 전통성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우리 아이들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우리 역사의 전통을 바로 세워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소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